

3,000여종의 불교용품을 앗은자리에서 편안하게 쇼핑하고 받아보세요!!



M 테마상품을 한눈에

연살약세서리 / 불교카렌더 / 봉축행사용품 / 시계방 / 희담석 건강용품 / 달마도



M 주간 베스트 상품

베스트상품은 상하로, 세일상품은 좌우로 엡디브하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편리하게..



M 스님용 추천상품

스님들에게 엄선하여 선정한 스님용 추천상품



M 마하몰 카페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로 고객들만의 카페 신설

M 강력한 불교정보 검색기능

불교인물검색, 불교용어사전, 불교 단체주소록을 마하몰에서 검색하세요.



봉축현수막, 연꽃리본 등 다양한 봉축행사용품

연꽃등, 만월등, 청사초롱 등

불교 캐릭터시계와 엔택시계가 한자리에

달마도의 대가 청곡 이한동선생의 달마도를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아로마향, 들꽃향, 참숯향, 한방향 등 웰빙시대의 천연향

특허받은 건강에너지 병동별 보석염주

불상조성전문가들이 제작한 불상

살아있는 연꽃열매를 몸에 지닌다 연살 약세서리

불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반아심경 반지, 목걸이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을 늘인 무공해식물성양초

명상음악, 찬불가, 독경음반 등

탁월한 효능으로 인정받은 희담석 건강용품

사찰용 냉,난방기와 고급무선차전자 등

백련대축제가 열리는 동양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전라남도 무안의 백련차 세트

2006년도 불교 카렌더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12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구

현대불교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9월 14일 수요일(음력8월 11일)

제 543호(부록) buddhanews.com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 2~6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
- 8~9면 한국의 율사들
- 10~11면 Q&A로 본 계율
- 12~13면 책속에서 살아 있는 계율
- 14면 '지계 제일' 불자들

부처님이 최후에 남긴 일성이자. 불자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본성과 계율뿐이라는 부처님의 사자후다. 계율은 선정(定)과 지혜(慧)를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이 된다. 마치 그릇이란 계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선정이란 물이 고이지 못하고 물 밑바닥을 훤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계율이 이 같이 중요함에도 불교계의 계율 인식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출가자들은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행막식을 개치지 않으며, 재가자들은 제대로 된 계율 교육을 받지 못해 그 중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화사에서 열리는 계율수행대법회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로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동화사(주지 자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으로 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에는 매주 토요일 1천여 불자들이 모여 계율의 성립과정부터 경전속의 지계정신, 중단제도, 한국불교의 계맥전승 등 계율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이번 계율대법회는 대중법회로는 첫 법회라는 의미뿐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 '계율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 '불자로서 첫 관문인 수계 →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계 → 끝없는 자기다짐의 참회'로 이어지는 계율수행이 개개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생명경시, 환경오염, 빈곤 등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이번 대법회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불교계 안팎에서는 지계수행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대사회 흐름과 계율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비롯해 계율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계층별·연령별 계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김철우 · 사진=박재원 기자

戒律 잘 지키면 청정한 마음 얻어

“계를 지니 신의(身口意)를 깨끗이 하고
심심하여 생각을 바로잡으며
다물하여 진실지를 나타내나
계율은 이들의 바탕이 되네.

계율은 미묘법을 간직하는 곳
그때로가 출세간의 재보(財寶)가 되고
계율은 큰 배를 타고 갈고 같은 것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너어 주네.
계율은 청량한 연못이 되어

모든 중생 열녀(熱惱)를 모두 식혀주고
계율은 두려움 없는 이슬이 되어
중생의 사독해(邪葑害)를 제거해 주네.”

<범망경> 보살계 ‘계율’의 일부이다. 계율수행을 왜 하는지, 또 계율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표현한 주옥같은 계송이다. 계율은 올바른 행을 붙여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다. 그럼 계율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계율(戒律), 너는 누구냐?

하나의 행동 규범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시한 금지 조항이다. 불교의 계율을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이해로는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 매달려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는 지혜의 가르침이 불교이기에 그렇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계율은 ‘열반의 산’을 오르는 탄탄한 발(戒足)”이라고 말한다. 계의 발이 튼튼해야 악행을 그치고(止惡) 선을 행해(行善)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이롭게(克己利他)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계행 없이 얻어진 ‘삿된 정(邪定)’과 바른 선정 없이 얻어진 악혜(惡慧)로는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계율은 선정에 앞서 몸과 행위를 다스리는 제학(戒學)이 된다. 따라서 제학은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이다. 깨침의 사다리에 오르는 첫 단계가 곧 제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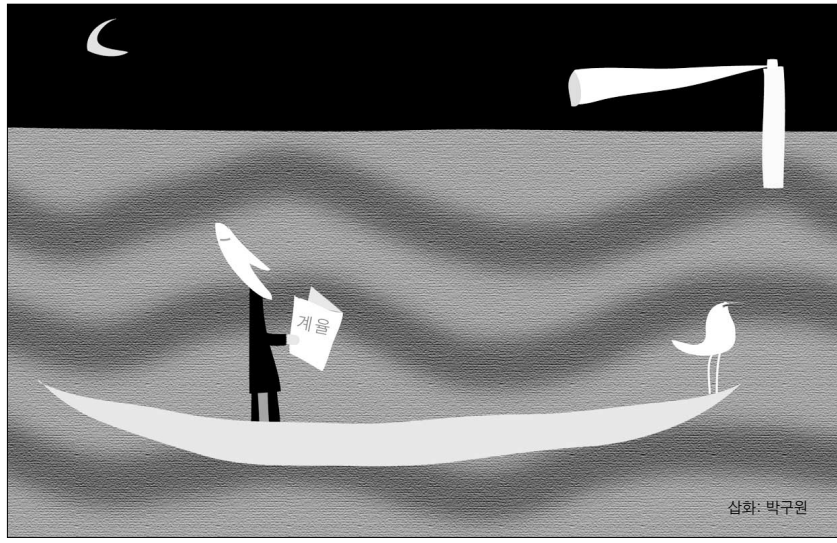
계와 율의 차이는?

계와 율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계’라는 말의 인도 원어 실라(Sila)는 ‘명상하다, 봉사하다, 실천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해 습관, 행위, 성격, 경향 등의 의미를 가진다. 습관이나 행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지만, 그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앞으로 일정

- 9월 24일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정정신
 - 10월 1일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 율정정신에서 본 중단의 제도
 - 10월 8일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한국불교 계율의 자주적 전승
 - 10월 9일 회향·보살계수계대법회
- ※중명: 보성(조계종 전계대회상) 진제(동화사 조실) 범룡(동화사 비로암 조실) 스님
 ※3사: 지관(전계) 혜정(갈마) 종진(교수) 스님
 ※7중: 지성 수성 지우 지하 도영 홍교 문인 스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 문의 : 동화사 (053)985-4404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1
- 법회 전체 동영상 중계
donghwasana.net와 buddhanews.com
매주 현대불교신문 24~25면 법문내용 소개



삽화: 박구원

냥 ‘계’라고 말할 때는 ‘선한 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는 ‘선한 습관, 선한 행위, 선한 성격’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계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발성에 있다. 자발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적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는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강조한다.

선정·지혜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 계-자발적 행위, 율-공동 생활 규범 절대성 아닌 ‘상황 윤리적 성격’ 강해

가령 이런 식이다. 불살생계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나 금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의다. 또 그런 다짐을 반복해 간직함으로써 몸이 완전히 배에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불교 교학에서는 어떤 계가 일단 몸이 배에게 되면, 그 사람이 계를 무의식중에 범하려 해도 이미 습관화된 계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그 사람은 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전문 용어로는 그런 잠재력을 계체(戒體)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반복해 습관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위업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계를 ‘위의(威儀)’라고도 한다.

반면에 ‘율’이라는 말은 비나야(vinaya)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생활 규범을 일컫는 말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는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어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원어를 음역해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수범수제(隨犯隨制)’ 원리로 만들어져

이러한 불교의 계율은 일반인들의 소박한 믿음과 달리 처음부터 부처님이 정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계율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가르침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자

계율 제정 의미 10가지

- 부처님이 설명한 계율 제정의 이유는 <사분율>권1에 나온다. 전문적으로는 계율제정의 10가지 정당성이라는 의미의 십구의(十句義)라 부른다.
- ①대중의 통솔을 위해서이다. 제자가 많아지자 수행자의 근본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했다.
- ②대중의 화합을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생활의 질서가 필요하게 됐고, 그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나하나의 계율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수범수제’라고 한다.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계율을 제정했다는 뜻이다.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명처럼 절대 명령이기보다 ‘상황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 적용에 항상 융통성을 보였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던 계율은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오히려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부처님이 입멸하기 전에 ‘소소계(小小戒)는 버려도 된다’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난다 존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았다. 또한 제1결집에서도 버려도 될 소소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결집에서는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의해 제정된 것은 버리지 말고 지켜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참회하는 마음 갖는것이 계율 잘 지키는 것

계율은 깨침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계율이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계율수행의 요체는 무엇인가. 과거침을, 즉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법문이 바로 ‘침불통계계(佛通戒偈)’다. 그 내용은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로, ‘무릇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행해 자기의 마음을 맑히 이 불법의 요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심(懺悔心)’이 계율의 기본이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선과 악이 뭔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회다. 그런 측면에서 계율은 ‘수계와 지계, 참회’,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핵심이다. 수계는 맑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이다. 만약 계를 어겼다면, 그것을 덮어두고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늘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참회를 함으로써 우리는 청정하게 맑게 거듭 태어나게 된다. 청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무배양** 천둥 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실근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 필터** 신소재 린드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준다.
- 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표적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다.
- 반영구** 축전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블레이드의 채택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함.
-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 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절기능** 5형에서 84형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함.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냄새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해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기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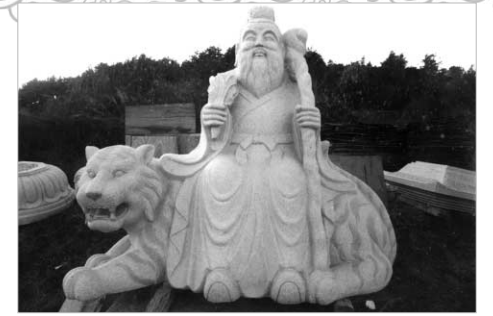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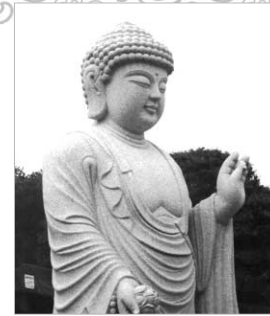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장사를 받음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양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함입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 031)531-5349 / 휴대폰 : 010-7474-5349



불자들은 오계와 보살계를 받지만 지계 '따로' 생활 '따로'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계를 수지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계를 묵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불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는 타의적 구속이 아닌 오히려 마음으로 불법을 닦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생활 속에서 오계를 서러 받처럼 지키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과 학원장 김민정씨를 만나봤다.



망만 보고 다니는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

"불살생(不殺生)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68·법상) 명예회장은 오계(五戒) 중 불살생 계목만큼은 15년간 환두칠미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회장의 오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남다르다. 남회장은 15년 전 오계와 팔계계를 수지한 후부터 걸을 때 땅만 쳐다보고 걷는다. 바로 개미 등의 곤충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밭에 외출도 삼간다. 부지불식간에 밭로 곤충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남회장이 이처럼 오계를 생명선처럼 지키고 있는 이유는 15년 전 원효종 종정 법흥 스님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장과 장아찌만으로 공양했던 법흥 스님의 청정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계를 받으며 불살생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스님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부처님과 맺는 것과 같잖아요." 그 이후 육식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15년 동안 주위에서는 '이제 그만큼 오계를 틀림없이 지켰으면 가끔은 좀 풀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순사례를 친다.

“미물 밟을까 두려워 밤 외출도 꾸~욱 참지요”

오계점검일지 쓰고 하루일과 반성

사실 그동안 음식 때문에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많았다. 동료들과 설렁탕집에 갔을 때 고기대신 면을 넣고 먹으면 편찬 아닌 편찬을 들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공연이나 경로잔치 등에 갔을 때,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었다. 그래서 해외공연이나 위문공연 갈 때는 과일과 옥수수를 식사대용으로 가져간다. 이런 남회장의 마음을 알아준 가족의 배려와 격려도 지계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됐다. 그러다보니 남회장은 아내와 딸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 콩과 두부 등으로 부족한 영양을 섭취한다. 남회장은 불음주 계를 지키는 데도 남다른 열의를 보인다.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 회식과 술자리가 생겨 불음주를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공연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뜰래 버리다 들켜 선배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많았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금기시하면 할수록 선·후배들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느낌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때문에 '직업이니가 불음주는 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음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초발심의 신심으로 극복해 냈다. 때론 노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정 계명만은 기필코 실천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회장은. 그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주인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회장은. 그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주인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오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면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남회장은 "오계를 어겼을 시 아전인수적으로 자기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며 "일기형식으로 오계점검일지 써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오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키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한다. **노병철 기자**

학원 학생에게 스마일 쪽지 보내는 김민정 씨

"불망어(不妄語)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친절한 말과 청진이라고 생각해요." 입시학원 영어 강사인 김민정(39·법승)씨. 그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계를 지키며 살기란 의외로 쉽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오계의 불망어를 '말조심하기' '아름답고 예쁜 말 사용하기' '칭찬하기' 등으로 풀어 해석하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김씨는 조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씨는 수업시간 전에 사랑과 조용함을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입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콤한 사랑으로 잠시 잊고 다시 활력을 찾으란 의미에서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김씨가 사랑과 함께 건네는 '스마일 쪽지(김씨가 직접 만든 활짝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때문이다. 스마일 쪽지는 웃고 있는 이모티콘, 명언, 불교경전 문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 살벌해요. 그렇다고 불교경전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불망어계 지키는 길이죠”

매일 새벽 108배 참회기도·오계 실천

원문적인 내용만을 청소년에게 소개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만 보이더라고요. 쪽지는 불망어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방편이죠." 사실 김씨는 15년 전만해도 선교를 위해 매일 신방을 다녔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러던 김씨가 불교로 개종한 이유는 통성기도, 세바기도, 신방 등 열심한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부친의 소개로 김씨는 청화 스님을 전진한 후 차츰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청화 스님은 저에게 지계와 보시를 강조하셨죠. 스님은 말로써 입을 짓는 것을 가장 경계하라며 '술마니반베를 늘 외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김씨는 오계를 율통같이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더군다나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김씨는 오계 가운데서도 '불망어' 항목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 잘 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상처 주는 말 등이 학생들에게는 평생 동안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힐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15년 동안 김씨가 오계를 지키는 일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항상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김씨를 만만히 보고 가끔은 욕하고 대드는 학생들과 부딪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에서도 불망어를 지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싶어 하는 자녀들 공부를 봐줄 때 짜증도 부리고 화를 내고 때론 회초리를 들었을 법도 하지만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새벽 108배 참회기도였다. 새벽 108배 참회기도는 김씨에게 단지 수행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오계 점검시간과도 같다. 김씨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에게 엄격해지면 오계는 '구속'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대자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108배를 하며 오계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제 삶을 점검하고 수행의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에게 이르셨다. '무생계(無生界)는 모든 성자(聖者)를 세우는 땅이며, 온갖 선행(善行)을 생기게 하는 터니, 티(塵)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찌 성스러운 선(善)이 설 수 있겠는가?' 모래를 써서 밥을 만들려 한들 어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며, 풍을 파내어 향을 만든다고 될 바가 없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려면 모름지기 지혜의 햇빛을 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 된다. 이 계는 온갖 속속(俗俗)이 누구나 수지(受持)해야 한다." <무생계경>

수계(受戒)는 불제자가 되는 필수과정이다. 즉 '작성(作善)'과 '이타(利他)'를 위한 자기선언이 바로 수계다. 즉 부처님의 행을 닦기 위한 첫 출발점인 셈이다. 그럼 계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계를 어떻게 받을까? 계를 받는 의미는 무엇이고 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수계는, 계의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켜 불자로서 살겠다는 자기 맹세다. 사진은 2004년 열린 동국학원 초·중·고등학생 합동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고 있는 학생들.

수계 - 청정 회복·악업 정화... '면죄부' 아니다

수계, 왜 생겨났나?
수계는 초기 불교시대에는 없던 제도다. 최초의 5비구 중 한명인 문단나(彌陳如)에게 부처님이 한말은 "오라 비구여"였다. 이 말이 곧 최초의 수계였다. 하지만 처음 제자 5비구가 들어오면서 성립된 교단은 이어 1000명의 대외교 교도 집단 개종, 사리불 목건련 등 250명의 개종 등으로 교단은 급속도로 커진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라 비구여"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 난 뒤에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단의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이면 족했다. 그러나 불교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부처님이 직접 만나서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교단에 입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수계제도가 생겨났다.

계를 주는 스님들은?
<사분율> 수계건도에 의하면, 현지에서 출가하려는 사람은 삼사칠중(三師七證) 앞에서 삼귀의를 다짐하면 승가의 일원으로 승인토록 했다. 삼사(三師)는 전제사와 교수사, 갈마사를 말한다. 전제사는 의발(衣鉢)을 갖추어 주고 제자로서 교육하는 스승을 말하며, 교수사는 갈마가 행해지는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계를 받을 때 웃어주는 법, 계목을 잘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법 등을 교수하고 비구가 될 수 없는 신체상의 결점 및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비구이다. 갈마사는 수계를 내릴 때 갈마의 의장이다. 갈마를 백사갈마라고 하는데 백(白)은 의안(議案)을 말한다. 즉 계를 줄 때 '모 비구를 화상으로 하고 아무개에게 계를 준다'며 의지는데 이를 백(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 찬부(贊否)를 묻는데 찬성하면 침묵하고 이의가 있으면 발언하는 방식이다. 전원 찬성해야 당사자는 계를 받는다. 이 같은 수계제도는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삼사칠중(三師七證) 제도로 나타난다. 칠증은 출장은 없는 말이다. 삼사 이외의 다른 비구는 증명사(證明師)라는 말이다. 즉 수계를 내릴 때는 모든 비구들이 참석해서 증명법사가 됐던 것이다. 이 삼사칠중은 현재 한국불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계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계율은 제가자 5계, 보살 10계, 사미(尼)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다. 이는 일일이 규제하지 않

아도 출가수행자로서 재가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한 것이다. 즉 삼귀의를 '기초'라 한다면, 비구계는 '구족(具足)'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삼귀의계가 불문에 '첫 관문'이라면, 비구계는 '마지막 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들 계율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선 삼귀의계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인 발심을 통해 오계를 받는다. 이후 오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살계 10계를 받는다. 이것이 10중대계(十重大戒)다. 재가불자가 이 10중대계를 받고 나서, 비구 비구니 구족계를 받아 출가자로서 길을 걷게 된다. 반면 출가하지 않고 재가불자로 남을 경우, 팔계계를 받는다.

불교 교세 확장되며 수계제도 형성 삼사칠중이 찬성해야 계 받아 재가는 오계, 구족계 받으면 출가 보살계는 스님 못지 않는 수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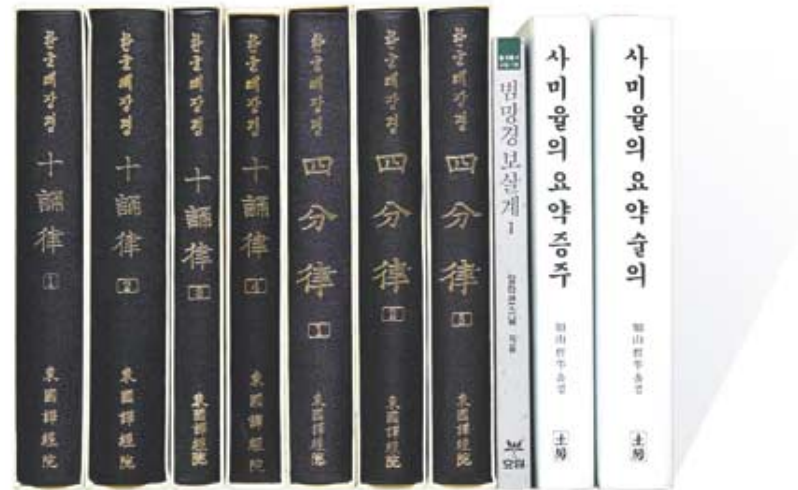
재가자들의 계율은?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받아야 할 계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삼귀의계(三歸依戒), 오계(五戒), 팔계율(八齋戒), 보살계(菩薩戒)다. 삼귀의계는 불문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교단에 귀의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부처님의 삶을 닮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 오계는 첫째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不殺生),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며(不偷盜), 셋째는 청정행을 할 것이요 결코 사음을 하지 말며(不邪淫), 넷째는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不誑語), 다섯째는 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不飲酒)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의 본분공덕을 실현하는 길이다. 재가자들이 받아 지녀야 할 계 가운데 오계가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팔계율은 하루 동안만 지키는 실천덕목이다. 계목 구성은 오계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해 팔계라고 하고, 6계는 정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 7계는 꽃으로 장식하지 않으며 향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 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계는 지나친 식탐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사치 향락적인 생활을 조심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이상(我相)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는 재가불자가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계다. 일반적으로 10중대계라 한다. 부처님이 재가불자로서 해탈을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설한 10중대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만약 이 계를 송하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보살계로는 <보살지지경>의 4바라이 41경계, <유가사지론>의 4바라이 42경계, <보살영락반법경>의 10무진계, <우바제계경>의 6중 28살의계, <보살내계경>의 47계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망경> 보살계본에 의한 10중(重) 48경계의 보살계 수계를 하고 있다.

수계자의 마음 자세는?
수계는 계의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맹세다.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사상이고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계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이자 참된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거룩한 의식이다. 특히 보살계를 수지함은 삼독심을 제거해 선구의가 깨닫혀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초심자들에게는 계가 마치 밭길을 갈 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수계자는 계를 받아 지닌다는 것을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과 약속으로 여겨야 한다. 수계 받기 전 삼귀의와 발보리심을 갖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참회와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 오계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를 받아 지니겠다는 굳은 결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계는 모든 악을 막고 모든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계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원이기 때문이다. **김철우 기자**



넓고 깊은 가르침... ‘백문이 불여일經’



출가자 근본계율서로 널리 채택

사분율(四分律)

불교교단의 기강 확립과 불교도들의 본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계율을 한데 모은 것을 율장(律藏)이라고 한다. 그 중 유명한 다섯 가지 율장, 즉 대중부의 <마하승기율>, 법장부의 <사분율>, 유부의 <십승율>, 화지부의 <오분율>, 음광부의 <해탈율>을 ‘오분율(五部律)’이라고 한다. 이 중 현재 전하지 않는 <해탈율>을 제외한 네 가지 율을 ‘사대광률(四大廣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분율>은 부처님 열반 후 100년 뒤에 담무덕(曇無德)이 상좌부(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4회에 걸쳐 뽑아 엮은 율문이다. <사분율>의 명칭은 내용이 네 단원으로 나뉘었다 해서 붙은 것이지만, 편의상의 분류일 뿐 실제로는 5종(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임찍부터 한국에 전래되어 <범망경(梵網經)>과 함께 스님들이 반드시 익히고 닦아야 할 근본계율서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었고,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다.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이 각 250계, 348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분율에 근거한 것이다.

원래 소승의 계율서인 이 책은 예로부터 많은 주석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장(慈藏)의 <사분율갈마가>, 원효(元曉)의 <사분율갈마소>, 경흥(憬興)의 <사분율십비니요기(四分律拾毘尼要記)> 등이 대표적이다.

계율 성립 과정·적용방법 설명

오분율(五分律)

원제는 <미사색부화해오분율(彌沙塞部和鞠五分律)>. 미사색부는 부처님 열반 후 300년경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갈라져 나온 파로 화지부(化地部)라고도 한다. 모두 30권이며, 산스크리트본은 남아 있지 않다. 중국 송나라 때인 5세기 초에 불타집이 한역했다.

책의 제목대로 내용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계율이 만들어진 시인과 조문,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1분은 비구의 계율을 다루고, 제2분은 비구니의 계율, 제3분은 비구들의 공동생활, 제4분은 비구들의 각종 모임과 규정, 제5분은 기타 여러 문제를 다룬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수계법·포살법·안거법·자자법이다.

이 경전에서 유래한 경전으로는 <미사색오분계본>은 계문 251가지를 뽑아서 비구들의 참회 모임에서 읽을 수

있도록 묶은 것을 말하고, <오분비구니계본>은 비구니들을 위해 373가지의 계문을 엮은 것이다. 주석서로는 <미사색갈마본>이 있다.

총 61권, 구마라습-비마라차 번역

십승율(十誦律)

10승(誦)으로 구성된 율장이라는 뜻이다. 모두 61권으로 구성된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번역했지만 완역하지는 못했다. 후에 비마라차(佛摩羅叉)가 구마라습의 한역본을 보충하여 61권으로 완역했다.

내용은 비구계와 비구니계로 나뉜다. 비구계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로 모두 257조를 해설하였다. 비구계의 뒤를 이어 교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총 17권으로 7법·8법·잡승(雜誦) 2법을 말하는 데, 다른 율장에서는 이를 ‘건도부’라고 부른다.

이와 여성출가자인 비구니가 지켜야 할 비구니계로 총 355조를 소개한다. 비구니계의 조직은 비구계의 조직과 같으나 조문 수가 훨씬 많고, 부정법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 중 비구계와 공통되는 조문은 총 205조이다. 비구니계 뒤에는 중일법(中一法)과 우바리문법(優婆塞離間法) 등의 부수법을 설명한다.

이 율장은 중국에서 중요시되어 404~409년 번역된 직후에는 주석서도 많이 나왔으나 내용이 변잡하여 <사분율(四分律)>이 더 많이 읽혔다.

설일체유부의 한 파인 근본설일체유부에도 이 율장과 비슷하면서 교훈적인 이야기와 더욱 많이 실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이(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가 전한다.

대중부로 전승, 엄격하고 진보적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인도 출신 승려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파미르 고원을 넘어 인도로 간 최초의 중국 승려 법현(法顯)이 5세기 초에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중 <마하승기율>은 상좌부에 전승된 다른 율장들과 달리 대중부(大衆部)에서 전승되었으며 보수적인 상좌부의 계율보다 진보적이며 엄격하다.

전 40권으로, 제1권부터 제35권까지는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 해당하며, 제36권부터 제40권까지는 비구니에게만 해당하는 계율이다. 이 중 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모아 편찬한 것이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摩訶僧祇律大比丘戒本)>이고 비구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편찬한 것

이 <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이다.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과 작법, 계율을 제정하게 된 동기, 각 계율의 세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또 탑을 세우는 작탑법(作塔法)이 있어 불탑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율장을 번역함으로써 동진 이후 중국의 율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세 계율에 큰 영향...주석서 다수

범망경(梵網經)

상하2권.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제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라고도 하며, 흔히 <범망경(梵網經)> <보살계본(菩薩戒本)>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산스크리트 원본은 120권 60품이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인도의 승려 구마라습이 한역한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근래의 연구로는 5세기경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 양식은 <회음경>과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상권은 노사나불(盧舍那佛)과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에 관해, 하권은 십무진장제품(十無盡藏戒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 대승 계율로서 보살이 지켜야 하는 가장 무거운 계율인 10중(十重) 계율과, 가벼운 계율인 48경(卽)을 설명했다. <범망경>의 계율 흔히 범망계(梵網戒)라고 하는데,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의 계가 소승의 계율을 포함한 대승계(大乘戒)인 데 비해서 이는 대승 독자적 계율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범망경> 대한 주석서도 종파를 가리지 않고 저술되었는데, 특히 천태종의 개창자인 지의 대사의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 화엄종의 이론을 집대성한 법장 스님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유식학(唯識學)의 관점에서 본 신라 대현 스님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述記)> 등의 3가지 주석서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가 저술될 정도로 후세의 계율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 언지율사, 사미십계·예절 다뤘

사미율의(沙彌律儀)

중국 명나라 언지(鑑池)(1536~1615)율사가 저술한 책으로 사미십계와 기본적인 사찰 예절을 다루고 있다. 언지율사는 32세에 출가해 50여 년 동안 수행하며 32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계율을 엄격히 지켜 후학들을 위해 <사미율의>를 남겼다.

경전과 선원의 청규(淸規), 당시 유통되던 사미승들의 예절을 다룬 <사미십범>의 내용 중 가려 뽑았으며 처음 출가한 사미 스님들이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과 사찰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새로 비구계를 받은 스님들이 지켜야할 도리를 다룬 도선 율사의 <행호율의> 가운데서 지켜야 할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행자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부처님 마지막 설법광경 담아

불유교경(佛遺教經)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경전이다. 구마라습이 한역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 전 제자들에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계를 지키고 오욕을 삼가하되 정죄(靜寂)를 구하고 정(淨)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 얻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부처님의 임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한 뜻에 예로부터 널리 읽혀왔다. 선종에서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긴다.

잘못 드러내 ‘업장의 뿌리’ 자르기

참회의 방법 포살과 자자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조 헤가 대사와 제자 승찬 사이에 오간 ‘참회 문답’. 승찬은 이어 스승 헤가 선사에게 무상(無相)참회의 경계를 내어보인다.
“오늘 죄의 본성이 안에도 밖에도 공간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여전한 공(空)인 것처럼, 죄의 티끌 또한 그러합니다.”
“됐다고그리고 입을 닫다.”

삼조 승찬 스님이 제시한 참회(懺悔)의 원리. 이 같은 무상참회는 육조 혜능 대사가 <육조단경>에서 강조한 ‘자성(自性)참회’로 연결된다. 즉 ‘제법의 참된 실상을 여실히 보면, 삼사에 지은 죄의 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그럼, 계율과 참회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참회, ‘지혜의 뿌리’로 업장의 뿌리를 잘라내는 참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계율참회는 무엇인가?
참회는 계의 참회와 율의 참회가 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악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다. 오계를 어겨도 계를 준 스님이나 부처님의 율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지만, 그 업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 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다.
율의 참회는 마음속으로 뉘우쳐서 없어지는 죄도 있고, 한 사람의 비구에게 가서 고백하면 없어지는 죄도 있다. 또 일정시간 참회 행위를 해야 하는 무거운 참회도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참회를 통한 본인의 본래 청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율의 참회다. 이를 통해 승단의 청정과 화합이 유지되는 것이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문제는 계의 참회다.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간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악행의 간섭하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죄를 정화하는 힘이 참회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 참회는 마음에 들든 업장의 더러움을 맑끔히 씻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포살과 자자가 계율참회다.
계를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참회법은 무엇일까? 바로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다.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인 포살과 자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갈등과 불화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자와 포살은 더없이 필요한, 자기를 점검하는 계율참회법이다.

포살을 하는 방법은 원래 포살당이나 혹은 도량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율을 능한 스님이 250계(戒)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의 한 조목을 3번씩 읽으면 계율을 어긴 자가 다른 스님들에게 고백 참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 사찰에서 주로 음력 보름에 포살



계율수행의 완성은 끊임없는 자기참회로 이뤄진다. 즉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는 고백의 장인 포살과 자자로서 새롭게 발심하는 것이다. 사진은 장계합장을 한 채로 참회 지도를 하고 있는 현대불교 자료사진

를 열어 참여하는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을 때 서약했던 오계(五戒)를 독송하고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제가 끝날 때 치르는 의식인 자자는 스님들이 각자 스스로 언거 기간 중에 자신에게 법계(犯戒)의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지적해 달라고 동료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이다. 자자 의식의 진행은 차례가 된 사람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나서 “여러분, 저의 행위와 언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만약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할 것이 없으면 대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도반들 간에 허물을 서로 지적해 주고, 지적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청정성을 유지하지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계율수행에서 참회가 왜 중요한가?
참회 없는 지계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관음대참회수련원을 개원해 참회수행을 지도해오고 있는 나주 불회사 주지 정연 스님은 “참회 없는 계율수행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참회가 근본 무명인 업식(業識)을 녹이는 마음공부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회는 일부 사찰에서 주로 음력 보름에 포살

이 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업식의 정화 없이는 어떤 수행법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자기 지은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꼴”이라고 말한다.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도 “지계는 실천에 그 핵심이 있다”며 “마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것처럼 참회는 지계 수행에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참회는 ‘자기발원(發願)’이란 점에 서 중요하다. 육조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영원이 번뇌 망념을 짓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 참회’라며 무상참회법문을 강조했다. 즉 ‘참(懺)’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회(悔)’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란 의미다.

#포살과 자자, 얼마나 되고 있는가?
불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계목을 조목조목 읽으며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는 고백의 장인 포살과 자자, 과연 불교계 현실은 어떠한가?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바른 삶의 각오를 행는 것은 포살전통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초하루, 보름, 각 재일 등 전통법회와 일일 계율수행은 물론 모든 불교 수행의 출발점

정해진날 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포살’ ‘자자’는 대중에게 허물 지적을 청하는 의식

나 포살법회는 일부 사찰에서만 하고 있다. 포살법회가 대중화·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한다. 즉 포살법회를 주관할 지도법사의 부재, 포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해이한 지계 정신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법회 활성화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1999년 포살법회의 순서와 진행법을 담은 <재가보살 포살본> 3천부를 발행,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당시 불교계는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검증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했지만 지금까지도 포살법회를 여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조계종 5대 총림을 비롯해 일부 사찰 및 선원 등이 정기적인 포살법회를 병행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스님이나 재가불자의 관심도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나마 몇 군데에서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계율참회를 통한 자기점검을 하고 있다.

정주 관음사의 경우, 1995년 8월 개원이후 매월 한 차례 포살법회를 열고 있다. 포살법사가 예경상, 현한경 등의 포살오목과 보살계서문을 먼저 낭독하면, 신도들이 ‘나무석가모니불’을 외며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토회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포살법회를 연다. 정토회 포살법회의 특징은 불자의 기본 계율인 오계와 함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계본(戒本)으로 포살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율을 지도법사가 낭독하면 잘못된 사람은 일어나 3배로 참회하고, 조별로 다시 포살을 열어 잘못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성 도피안사도 매월 첫째 일요일 포살법회를 병행해 참회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포살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강화사(3· 서울 석관동) 씨는 ‘포살법회는 식사 후 설거지’로 비유한다. 알چه 모르게 지은 일상속의 잘못을 늘 참회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지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자기반성은 물론 기복 중심의 신행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포살과 자자를 통한 계율참회는 자기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많은 스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수행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해낸다. 현실 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포살법회의 대중화를 통한 지계점검 전통회복을 위해서는 ▲계율 관련 법회의 활성화 ▲계층별·연령별 포살계본 마련 ▲통일된 포살법회 형식 복원 ▲매월 초하루, 보름날의 ‘포살의 날’ 제정 ▲포살지도 법사 양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김철우 기자

■특필기고: 현대사회와 계율지키는 삶

목숨 버려 계 지키길 ‘마음’ 있어야

승가의 생활규범을 제시하는 계율,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인 해탈(자유)과 열반(행복)을 실현케 하는 계율은 특히 재가자들에게 신심과 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을 일러준다.

계율은 먼저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오계를 통한 자기제어, 소욕지족과 무소유로써 청빈한 삶을 살게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응집시키고 단결시키는 힘을 준다. 때문에 계율은 남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사상으로 연결돼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와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게 한다.

또 계율은 승속 계급 나이 성별 등을 초월한 평등정신을 구현하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행위의 자발성과 믿음을 준다. 게다가 자신의 문제를 참회하는 데 있어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참회법을 이끌어낸다. 즉 절차의 중시와 타당한 징계는 불자들의 청정성을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계율은 현대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을까?

얼마 전 열 가지 악업에 대하여 강의 할 때의 일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항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남의 생명이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목숨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 할 때쯤 어떤 50대 남자가 손이 들었습다.

"강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까짓 곤충 한 마리 목숨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세계 최강대국에서조차도 제방이 무너져 기록적인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미물 하나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는 그야말로 환상 속의 공허한 메아리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처음으로 정하던 부처님 당시에도 사정은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 터이고, 영토확장과 주도권선점을 노리는 강대국들간의 힘 없는 전쟁이 지금과 똑같이 벌어졌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이런 사정을 모르실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돌고기를 뚝으로 끊어내어 괴롭힐 때면 "너희도 너희보다 훨씬 누군가가 자신들을 괴롭히면 싫겠지? 그런데 왜 너희보다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느냐"라며 만류하셨고, 뱀을 때리고 노는 아이들을 보고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생물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라며 장난으로라도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버려 비구 두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서 모든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다. 두 사람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는데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다. 그러다 기적처럼 오래된 샘물을 발견하였습다. 하지만 그 물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하였습다. 물을 마시면 그 벌레들을 산체로 다 죽이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여 부

처님을 버려 갈 것인가, 아니면 설명 부처님을 뱀지 못하더라도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는 계율을 지켜서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인가.

의견이 나뉘어졌습다. 한 사람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으뜸으로 삼는데 생물을 해쳐 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뱀보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싶지는 않으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하여 한 사람은 곧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전에서는 숨을 거둔 사람이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 생기를 되찾은 사람이 저간의 사정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을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



현대사회에서 계율은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특히 지계를 통한 자기제어, 소욕지족으로써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한다. 사진은 현란한 빛을 내뿜으며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야경.

모든 존재는 '나' 처럼 소중함 알면 매순간 진지하게 지계의 생활 가능

만 나는 네가 보이지 않으니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그 비구는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법구비유경>

분명 부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심합니다. 심하다 못해 잔인하게까지 들립니다. 앞서 저에게 반론을 제기한 그 남자와 분과 같은 심정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 을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의 희생을 딛고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희생은 무시해도 되고 어떤 희생은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목숨의 경중을 잴 수가 있을까요?

매의 공격을 피해 풀안으로 날아든 비둘기를 구하려 한 보살의 일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줄 밖에 되지 않는 비둘기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살점을 베어주겠노라 약속하였지만 결국 보살은 제 몸을 온전히 비둘기 한 마리와 바꿔야만 했습니다. 목숨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느라 안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버둥거리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 사람에 게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나' 만큼 소중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여기에 '계율을 지키는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 내가 나의 수행까지도 다른 목숨의 희생을 딛고서 얻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지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급적 약보다는 선을 추구할 것이요, 되도록 나 혼자만의 기쁨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연화함으로써 이 몸을 이루어 이렇게 살아가듯이 저 미물 역시 인연화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살아 가듯이 저 미물 역시 행복한 삶을 향해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듯하게 웃을 입고 행동

거지가 흠어지지 않으며, 나를 유혹하는 대상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계율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외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과감히 계율을 깨고 범하는 일에조차도 결말이 없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대자유인의 삶이라고들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꿈틀거리는 미물이건, 총을 든 강대국의 병사건 간에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생명줄 하나를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사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지계인(持戒)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이 온전히 차올라서 그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는 굳이 계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매순간이 진실한 지계의 삶이 될 것이요, 어지럽게 춤을 추는 폭력과 살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뿐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용어공부

Q & A

쉬운 듯 어려운 계율. 그 용어부터가 낯설고 생소하다. 보살계 구축 계부터 연비까지 자주 접하는 계율 용어의 뜻을 간추려 본다.

구족계(具足戒) 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한다.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이 계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에 청정(淸淨)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구족이라고 한다. 사미(尼)계를 받고 4년간 강원이나 선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뒤 수계산림을 거쳐 구족계를 받는다.

보살계(菩薩戒) 보살계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해 나가는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보살계는 <보살지지경> <법망경>등 여러 경전에서 설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망경>의 '법망계(法網戒)'가 가장 많이 설해졌다. 범망계는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로 이루어진다. 10중계는 '바라이'라 하여 범하면 교단으로부터 축출된다. 48경계는 10중계를 잘 호지하기 위한 계로 범했을 경우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삼취정계(三聚淨戒) 대승의 보살이 지나야 할 계법(戒法)으로 삼취정정계·삼취계라고도 한다. 소승의 금계적(禁戒의) 계법에 비하면 적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섭율의계 삼취정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섭율의계-율의계를 준수하는 것. 율의계란 대승 이전의 교단에서 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온갖 계율 조목을 가리킨다. 흔히 소승계로 불린다. △삼취정계-악행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 △섭중생계-요익유정계라고도 불린다.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자비행을 말한다.

보살계란 깨달음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출·제가 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



정리=강지연 기자

나의 지계 지수는? 체크해 봅시다

점검사항	매우 자주(10)	자주(7)	보통(5)	드물게(3)	안함(0)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오계(五戒)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잠자기 전 하루 동안 계를 잘 지켰는지 자신을 돌아보는가?					
가족 및 동반 친구들에게 오계 지킬 것을 권하는가?					
자신의 지계행이 사회를 밝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참회하는가?					
점검사항	매우 자주(0)	자주(3)	보통(5)	드물게(7)	안함(10)
술을 마시는 횟수는?					
낚시 사냥 등을 즐기는가?					
남편이나 부인, 미혼이라면 애인 외에 딴사람을 마음에 품는가?					
좋은 물건을 보면 물레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남에게 상처 주는 법, 거짓말, 욕설 등을 하는가?					

A(75점 이상)-당신을 오계지킴이로 인정합니다. 불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지향하며 남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51~74점)-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 치의 허술함도 허용되지 않는 것. 더 분발하시면 퍼펙트해집니다.

C(31~50점)-조금 더 노력합니다. 생활이 바빠 계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를 지킴으로써 얻는 마음의 여유는 당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D(30점 이하)-수계는 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계를 받은 이유를 되새기세요.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Q & A

수계를 왜 해마다 받아야 하는지, 법명을 여러 개 받아도 되는지 불자들은 오계·보살계 등을 받으면서도 궁금하다. 살아가면서 수지한 계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불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도 의문이다.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사진)에게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계율 관련 의문 일곱 가지에 대한 답을 듣는다.



대승계율, 소승계는 무시해도 된다?

대승계율은 적당히 큰 것만 주려서 지키는 것처럼 오해한다. 대승계는 계를 범하는 마음조차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승계는 마음속으로 계를 범해도 행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의 기준이 약하다.

즉 마음으로 아무리 계를 어겨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소승계이다.

그러나 대승계는 계를 어기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계를 범한 것이 되는 엄격한 계율이다.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적당하게 계율 광의해석하려면 대승불교를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계는 해마다 받아야 한다?

오계는 한 번 받아서 평생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수시로 받는 계는 육재법에 받는 팔관재계다.

그러나 계를 한 번 받고 평생을 지키는 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기시키고 복습하기 위해 또 받는 것이다. 계를 여러 번 받는 것 자체는 재가자들에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많이 받을수록 내가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미 수계가 아닌 기복이다.

요즘 수계는 '앞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받으라'는 말에 너무 얽매어 있다. 이 말을 핑계삼아 수계를 강요하고 불자들은 계를 받는 것만으로 끝낸다. 단지 수계증을 받고 법명만 받았을 뿐 계를 지키는 생활은 안 되고 있다. 계를 받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참회 반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계의 내용이 생활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계는 면죄부가 아니다. 수계사이 죄를 없애주는 의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계의 의미는 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악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

오계는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다. 벌칙은 없지만 개인적인 죄업은 있다. 악행에 대한 괴로움의 과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계를 받고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불자에 대한 자각, 불성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

재가자는 해마다 계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포삼의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포삼에는 출가포삼과 재가포삼이 있다. 출가자들은 보름마다 지난 보름을 반

성하고 자기 생활을 참회하고 승가 청정과 화합을 확인한다. 재가자들은 육재일마다 계를 받아 하루 낮밤을 한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재가포삼을 한다. 이때 받는 계는 팔관재계이다. 팔관재계는 출가계라서 재가자가 지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법명은 수계 때마다 새로 받는다?

불자들이 수계할 때마다 큰스님들에게 법명을 받는다. 그래서 법명이 여럿인 사람들도 많다. 수계 받을 때마다 법명을 새롭게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명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

법명은 불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 해서 불명, 계를 받을 때 얻어진 이름이라고 해 계명이라고도 한다. 계는 여러 번 받아도 법명은 그대로 써야 한다. 법명은 여러 개 있어도 이름은 하나이듯 법명도 하나만 써야 하는 것이다.

법명에서 성명학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법명은 불자로서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자 이상이고 목표이다. 법명대로 살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법명을 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명을 자주 바꾸고 새로 받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제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

불교가 태어난 나라 인도는 열대지방이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를 가진 이들은 종교의 계율을 술을 금하기 때문에 더더욱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어떠한가. 편리에 따라 술을 마신다. 계율 해석조차 자기 마음대로이다. 원효대사의 무애행 등을 핑계 삼아 쉽게 술을 마신다. 술은 36가지 과실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이 술이 오계의 불살생(不殺生) 불사음(不殺生) 불루도(不偷盜) 불망야(不妄語)가 만들어진 계가 된다. 그만큼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술을 끊는다고 못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을 즐기는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단순히 즐기는 범위를 넘어서 광적으로 마신다. 오죽했으면 검찰청에서 폭탄주 마시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폭탄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술이다. 불음주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내 편에 따라 원칙을 흔들어서

마음으로도 범하지 말라 계 받기 보다 실천이 중요 법명은 하나만 받아야 불음주 원칙 분명히 세워라 ‘삼각관계’는 사랑 아닌 불륜

는 안 된다. 불자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삼각관계는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다?

요즘 언론매체나 미디어에서 이종관계 또는 삼각 사관관계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부처님께서 '불사음'이라 하여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의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마음속에 담은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요즘은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정상적인 부부 이외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내는 것도 문제다. 애인이 없는 기준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양 쉽게 매도하는 것을 본다.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 근친상간 같은 자극적인 소재도 비일비재하다. 사회적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직시하고 불자들은 환경에 끄달리지 말고 초심을 굳건히 가져 불사음계를 지켜야 한다.

계율 내용을 다 모른데도 받아야 할까?

오늘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보살계의 경우 계율 항목이 많아 불자들이 계를 받기 전에 모를 수 있다. 보살계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율 항목을 다 모른다고 해도 계는 받아야 한다. 계를 받고 난 후부터 그 계율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계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계점을 받으면 그 안에 계율 항목이 다 나온다.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매일 계점을 보라. 매일 보면서 계를 기억하고 또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부해라.

계율 항목을 다 외우고 있어도 100%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 계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 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법을 주려고 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려고 계를 받는 것이다.

불자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나?

불자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살 생하려는 마음을 끊기 위함이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 먹을 수밖에 없거나 만부득하게 먹는 것도 안 된다는 단순 금지조항이 아니다. 식탐을 내고 즐기면서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육식은 많은 질병을 만들어낸다. 광우병도 결국 살생에 의해 생겨난 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정리=강지연 기자



삽화: 박구원

여시아문 특별 기획 판매

또 하나의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시간을 여시아문이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법회를 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집필하신 도서를 특별기획판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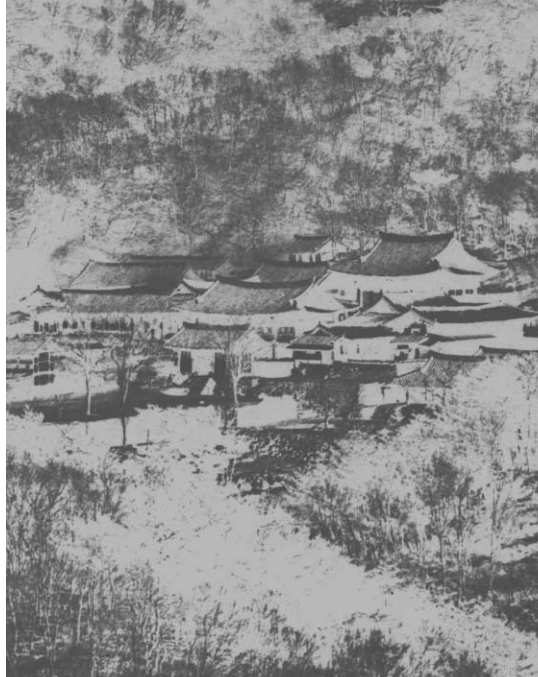
동화사에서 주셨던 스님의 높이신 법문과, 계율을 의지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진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한 여시아문 특별기획판매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교부족이나 절판등의 사유로 모든 스님의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www.yosiamun.com

e-mail : yosiamun@buddhapia.com

• 전화주문 : 02)2004-8220 • 팩스주문 : 02)737-0696



계율수행 후에 참 실천의 가르침을 주는,

여시아문 추천 도서

집착은 마음의 적!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물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계단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운을 일으키고 고만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248쪽 / 8,000원
지하 지음 / 대승 율집

오직 당신에게만 권한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내침법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9,000원
안양규 지음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

이본보다 실천, 법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질을 제시한다.

A5 / 436쪽 / 12,000원
불학연구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모리도저제(菩提道次第)'를 초월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4,500원
초월 스님 편역

예능스님 편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정가 : 6,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불자를 위한 계율과 자기수양의 도를 써내려간 책. 1장 삼귀의계를 시작으로 십선계, 재가 불자의 윤리,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등을 담았다.



법화경의 세계

정가 : 10,000원

- 법화경에 대한 연구서. 행(行)의 불교에서 신(信)의 불교로 전환하는 불교 경전 <법화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원시불교의 연구

정가 : 25,000원

- 계와 율의 성격 분석과 차이점 등 율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 놓았을 뿐만 아니라 승가의 기본적인 성격과 인도 사회에서의 발전 배경과 변천 과정등 교단 조직의 원형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찰한 책

지운스님 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정가 : 10,000원

-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전해주는 책. 자비수련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진정한 행복이 삶 그 자체가 되어 생로병사의 고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자비수련, 자비심을 중심에 두고 몸을 주된 관할 대상으로 하여 정념으로 삼법인을 체득하고 삼매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수행법이다.

철우스님 편



사미니율의

정가 : 7,500원

- 사미니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계율을 통하여 지침하는 법을 상황과 때에 맞게 모두 풀이하여 엮은 책으로 원문뒤에 한글로 풀이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사미율의

정가 : 7,500원

- 사미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계율을 통하여 지침하는 법을 상황과 때에 맞게 모두 풀이하여 엮은 책으로 원문뒤에 한글로 풀이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각묵스님 편



금강경역해

정가 : 18,000원

-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전 분석 및 주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인 금강경의 말씀이 구마라집의 안목에 갇혀서 불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묵스님께서 원전, 그 중에서도 원전의 중요한 줄어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해석한 책.

■ 자장 율사

계 지키고 하루 살지언정 과제하여 백년 살기 싫다

자장율사는 590년 신라에서 진골출신 김무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인생무상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자장율사는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가 시뭇발을 둘러놓아, 빗은 몸으로 그 속에 앉아서 수행했다.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게 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 머리는 천장에 달린 끈으로 묶어 흔들림을 방지했다.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정진하며 백골관을 두었다. 선덕여왕이 등용하기 위해 불러들이자 그는 “차라리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할 정도로 계를 중시했다.



양산 통도사 개산조장 해장보각에 소장된 자장율사 진영

638년(선덕여왕 7)에는 당나라로 유학, 장안(長安) 공관사(空觀寺), 승광사(勝光寺) 등에서 수학했으며, 종남산(終南山)에서 수행하며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개창조인 도선(道宣)율사와 교류했다. <속고승전>에는 자장율사가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도선율사가 장안성 밖 정업사에 계단을 설립한 것이 667년이고 자장율사가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운 것이 646년으로, 자장율사의 계단이 21년이나 앞서 있어 자장율사가 도선율사에게 부처님 계율을 가르쳐줬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자장율사가 종남산에 있을 때 한 장님이 그의 설법을 듣고 참회하자 곧 눈을 뜨게 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그를 찾아와 계를 구하는 사람이 매일 1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장율사는 불교를 근간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선덕여왕의 도움으로 왕으로 귀국하게 된다. 자장율사는 대국통 자리에 올라 계율로써 승단의 기풍을 바로잡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보살계를 받아 지니게 했다. 불교 믿는 사람은 계를 받고 불교

에 귀의하는 법도를 확립한 이가 바로 자장율사다.

그의 공으로 불법은 크게 발전했다. 거의 모든 국내 사람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을 숭배했다고 한다.

그 계율관은 <사분율(四分律)>에 엄격히 입각하되 보살계정신을 가미한 형태였는데, 그가 구축한 불교교단체제와 계율사상은 후대까지 강인하게 지속했다.

자장율사의 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 승려로 현신한 문수보살로부터 가사와 바루, 부처님 불발을 받아온 것. 문수보살은 “입체의 법은 모두가 자성이 없다. 법성(法性)을 이렇게 요묘하면 공노사나불을 보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사, 태백산 정암사, 통도사 등에 사리탑을 세워 사리와 불골을 모셨다.

■ 진표 율사

‘점찰법회’ 대중화로 계법 중심 참회불교 확립

진표율사는 백제 유민을 이끌던 진내말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몰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742~766년에 크게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고승전>에는 진표율사의 출가 기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표율사가 11세 때, 홀로 사냥을 갔다가 연못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를 잡아 구워먹을 생각에 껌이에 꿰어 연못에 넣어둔다. 하지만 사냥에 정신이 팔린 그는 잊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만다.

이듬해 봄 다시 연못을 가보니 개구리는 산채로 울고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에 꿰인 채 겨울을 난 개구리를 본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금산사로 출가했다.

진표율사는 순제(順濟)에게 사미계법을 받았다. 순제는 <공양차제법>과 <점찰선악업보경>을 주면서 미륵과 지장전에 참회해 계법을 지니고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을 부탁했다.

개구리에 가한 고통을 속죄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는 신체에 극한적인 고통을 주는 참회법으로 계법(戒法)을 구했다 한다. 전신을 계속 치고 받으며 입심으로 망신참을 수련한 지 21일이 지나자 지장보살이 계본(戒本)을 주고, 미륵보살이 목간(木簡)을 주면서 교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교법을 받고 내려온 진표율사를 향해 뜻깊음이 없드렸고, 백성은 정성을 다해 맞았으며, 대연전에서는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았고, 그 용왕으로부터 금산사를 증창했다고 전한다.

진표율사는 속리산, 금강산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중생을 교화했다. 일화에 따르면 속리산에서 소(牛)들로로부터 귀의를 받기도 하고, 명주해변에서 고기떼에게 계법을 설하기도 했다.

또 왕과 궁중의 중신들을 모두 불러놓고



김계 금산사 조사전에 소장된 진표율사 진영

보살계를 설했는데, 감음한 왕이 스님에게 7만7천석을 공양하고, 왕후궁에서도 비단 5백단과 황금 50냥을 공양했다고 한다. 스님은 공양물을 전국 여러 사찰에 나누주고 자신은 다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다.

금강산에서는 점찰법회(點察法會)를 열어 7년간 머물면서 점찰법회(古察法會)를 열었다.

점찰법회란 <점찰선악업보경(古察善惡業報經)>에 제시된 목련상법(木輪相法)이라고 하는 점찰법에 따른 것으로, 죄과를 풀이하고, 거기서 나온 자신의 업보를 참회법회를 통하여 소멸시켜 대승의 수행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또 흥년으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진표율사는 점찰법회를 계승하면서 점찰법회를 점찰행위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계법 중심의 참회불교를 확립했다. 참법(懺法)의 대중화는 민중들에게 호응 받으며 새로운 불교운동의 상징이 됐다.

■ 용성 스님 전통율맥 이어 대각·청정교단운동 펼쳐

용성 스님은 1863년 전북 장수에서 아버지 백남현제와 어머니 밀양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세 되던 1879년 화월스님을 은사로 출가, 1884년 통도사에서 선국율사(禪國律師)로부터 비구계 및 보살계를 받아 칠보암 대운율사의 맥을 이었으며 1940년 입적했다.

스님은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 어느 하나로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선 수행에 전력을 전사하기도 하고, 불교경전 한 글번역에 앞장선 역경가이기도 하다. 또 일제시대에 대각교 운동을 전개해서 불교 현대화에 힘쓴 인물이기도 하다.

근대 최초의 도심포교당 대각사를 창건했고, 불교의식 간소화 및 찬불가 제정, 경전 한글화를 통한 불교 현대화·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3·1운동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율사로서의 면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스님은 단절됐

던 전통율맥을 다시 이은 대운(大運)으로부터 시작해 금담(錦潭)·조희(弔依)·범해(梵海)를 거쳐 선곡(禪谷)으로 이어진 맥을 이어받은 6대 율사다.

스님은 한국전통율맥 계승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엄격한 지계행을 두었다. 청정교단을 위해 건백서 운동 등 지속적인 정화운동을 벌였던 점은 그런 율사로서의 사망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스님은 1926년 두 차례에 걸쳐 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스님은 “승려의 취처식육을 허가한다면 승속의 이종(二衆)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금지하지 않으려면 대적승려의 비구계를 취소하고 환속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스님의 계율부흥운동은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1929년 부처님오신날 해인사에서 대대적인 수계식을 가졌다. 이때 수계 대중이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범법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한 것도 계율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스님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율주식육과 막행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율로써 스승을 삼으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기도 했다. 스님은, 계율을 논하기에 너무나도 타락

한 당시 불교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대각(大覺)운동을 벌였다. 대각교의 의식집과 수계의식은 스님이 직접 제정했고 실천에 옮겼다.

용성 스님이 계율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는 10개 항목으로 된 용성스님유훈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님은 8번째 항목으로 “삼귀의·5계 수계법회를 통해 수계자가 1백만 명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대나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 전에 바쳐 출가 봉공케하라”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용성 스님은 직접 설한 “세간오계(世間五戒)를 수지하여 호국호법의 간성으로 삼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간 오계 ▲ 나라에 생령 바쳐 충성하라 ▲ 아버지에게 생령같이 효도하라 ▲ 스승에게 생령 다해 공경하라 ▲ 벼에게 생령 함께 신의로 사귀어라 ▲ 싸움에 생령 걸고 지혜롭게 이겨라

■ 고암 스님

자비·인욕·하심 철저히 제자에게도 늘 ‘경어’

고암 스님은 1899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17세가 되던 1917년 해인사로 출가, 제산(濟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22년 용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38년에는 용성 스님의 법거랑을 통해서 인가를 받았다. 한번 하기도 힘든 조계종 중정을 세번(제3·4·6대)에 걸쳐 역임하기도 했다.

선교(禪敎)를 두루 섭렵한 스님은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가르침을 줬다. 계율과 관련하여 스님은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지계행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고암 스님은 무유정정의 자비보살로 통한다. 스님은 재물이나 명예 등 어느 것에도 집착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수행자에게 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올린 공양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법문을 하고 받는 거마비도 마친가지였다. 절 현황이 어렵다실으면 받은 거마비를 법단에 놓고 나왔으며, 어렵지 않은 사찰이면 거마비를 받아서는 필요로 하는 이에게 줬다. 그래서 고암 스님 돈은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스님의 수중에 돈이 남아나지 않았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주변에서 “더 늙으면 약도 먹어야 하고 용돈도 필요할 것”이라며 모아 두시라고 권했지만, 스님은 “옛날 빛이 커서 저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유인 즉 스님이 20세 때 불발을 배우려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입진강을 건너려 하는데 뱀새가 5년 모자랐다. 이를 어느 젊은 아낙네가 대신 내줬다는 것. 그러나 스님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못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고 말았고, 그



후로는 다만 그 아낙네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때 그 빛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스님은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책이나 명예에도 집착이 없었다. 유명해지면 명리(名利)에 쫓겨 공부를 그만두는 신초에 따라 절에서 수행할 때 공양주를 받는 등 늘 하심에 힘썼다.

결양이 아예 스님의 몸에 배었는지 스님은 제자에게도 경어를 썼다. 신도들이 자신에게 삼배하면 한번만 하라고 단뽀했고, 절을 받더라도 꼭 맞잡로 받았다.

스님은 자신의 일을 남에게 시키는 법이 없었다. 세수 70이 넘는 나이에도 자신의 옷은 언제나 손수 빨아 입었다.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이 일만은 그치지 않았다.

제자 대한 스님이 미국 하와이에 대한사를 창건할 때는 하와이의 불편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밤중에 일어나 제자들이 먹을 아침 공양을 손수 지어줬다.

■ 일타 스님 율장전서 열람후 계법 정립... 계율책 다량 집필

일타 스님은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집안은 소문난 불교집안으로, 친가와 외가에서 41명이나 출가했다. 외증조 할머니인 평등월(平等月) 보살이 입적했을 때는 방광(放光)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다. 특별한 출가동기가 없었을 정도로, 스님에게 출가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42년 통도사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43년 4월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고, 49년 통도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스님의 본격적인 율장연구는 53년 천화율원에서 자운 율사의 권유로부터 시작됐다. 스님은 율장전서를 열람하고 계법을 정립했다.

54년에는 적멸보궁에서 오른 손 열두 마디를 태우는 초인적인 연지연향(燃指燃香)을 발원하기도 했다.

“허공과 같은 법신 자리에 절하옵고/ 간절히 일하나이다/ 오직 가피를 드리우시어

/ 저의 미혹한 구름 열어주소서(…)”로 시작된 발원문은 구도에 대한 스님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듬해인 55년에는 경북 봉화 도솔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오후불식(午後不食)·장좌불와(長坐不臥)를 지키며 홀로 6년 결사를 하기도 했다.

스님은 계율을 불자만의 특권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스님이 저술한 <범법경 보살계>에서 “선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닦을 수 있고, 교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지만 계율은 불교 집안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하며 “계율을 온전히 행할 때 불자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계율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속이 아닌 적극적으로 아름답고 덕스러운 자기본분행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 자운 스님

포살·보살계 되살린 한국불교 율의 중흥조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 율(律)중흥조로 평가받는 현대의 대표적인 율사다. 청정계율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 후학을 지도해 자장율사의 후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27년 해인사에서 해운(海雲)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4년에는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당대 최고 율사였던 경념(敬念)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고,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율장을 연구했다.

스님은 오부율장(五部律藏)과 주소(註疏)를 모두 필사하는 등 율장, 특히 사분율(四分律) 연구에 정진했다.

저는 뜻한 여름날에도 무명 장삼 가사를 벗지 않고 서사하고 외우며 부지런히 율행을 실천하는 각고 정진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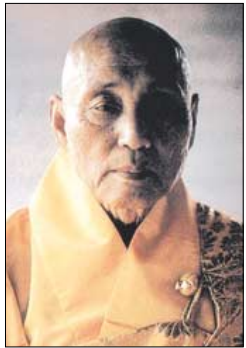
35년에는 출진 불명사에서 결사에 돌입,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으로 결사를 회향했다. 38년에는 도봉산 망월사에 주석하고 39년에는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1939년에는 자장율사를 본받아 오대산에 들어가 하루 20시간씩 ‘100일 문수기도’를 봉행했다. 기도를 시작한 지 99일째 되던 날 청사자를 타고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착하다 성우여! 불교의 승강(僧綱)을 회복토록 정진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처럼 서상을 입어 심지계법문(心地戒法門)을 통달한 스님은 일본불교로 인해 세속화된 전통계맥을 바로 세우고 승풍을 쇄신하는 데 전력할 기율이게 된다.

이를 위해 48년 처음으로 문경 봉암사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주관함으로써 잊혀졌던 보살계를 부활시켰다. 또 49년에는 대각사에서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의 간행을 준비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다시 간행에 나서 부산 감로사에서 계본 4만8천 권을 출판했다.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 전개대회상에서 추대된 스님은 1992년 열반에 들기까지 해인사·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 1650명, 비구니 1536명을 포함 수계제자 총 1만여 명을 배출했다. 자운 스님의 계를 받지 않은 불제자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님의 역할은 대단했다.



이밖에도 <무량수경> <약사경> <자비수참> <권보발리심론> 등 경율 21종을 간행했다.

51년에는 통도사에 천화율원을 개설해 후학들에게 율학을 강수했다. 이 곳에서 일타 스님을 비롯해 여러 율사가 배출돼 한국 율맥 계승에 크게 기여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승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속인처럼 세기 식사를 하던 승단에 “때 아닌 때에는 먹지 말라(不非時食)”는 가르침을 강조해 오후불식의 기풍을 다시 세운 이도 스님이었고, 대중들이 모여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의식인 포살법회를 되살려 계율을 이르는 승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도 자운 스님이었다.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 전개대회상에서 추대된 스님은 1992년 열반에 들기까지 해인사·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 1650명, 비구니 1536명을 포함 수계제자 총 1만여 명을 배출했다. 자운 스님의 계를 받지 않은 불제자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님의 역할은 대단했다.



여러 책을 발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여, 절에 강직이 때 무너졌던 이 땅의 계율을 재정립하는 데 전력투구했다. 스님은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계율정신 회복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타 스님은 명에도 고사했다. 1970년 무명 해인사 대중이 일타스님을 주지로 선출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 일타 스님이 사라지고 없었다. 성철 스님이 스님의 상하인 혜국 스님에게 말하기를 “주지 안 하려고 너희 스님 도망갔다. 갈아입을 옷이나 챙겨다 드러라” 해서 수소문해보니 일타 스님은 도봉산 어느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었다.

일타 스님은 또 겸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스님은 평소 길가에 버려진 포장지라도 눈에 띄면 주워 모았고, 한번 쓴 편지봉투는 버리지 않고 재활용했다.

92년부터 불자만의 율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집필을 시작해, <기도> <생활 속의 기도법> <문화와 인공음료 이야기> <사자하는 마음>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등 20여권을 출간했다.

1993년 조계종 전국 구족계 단일계단 전개대회상으로 추대돼 수계의 중임을 맡았고, 1999년에 입적했다.